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0 Vol. 208  
October 2017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0 Vol. 208  
2017 / October

## Special Performance

- 04 | 기획공연 I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 06 | 기획공연 II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한다>



## Special Exhibition

- 08 | 기획전시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II」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10월호 / 통권 208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 Contents

## Art & Performance

- 10 |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 시리즈5
- 12 |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의 아름다운 유산
- 14 | 울산시립무용단  
국악한마당
- 16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추수 그리고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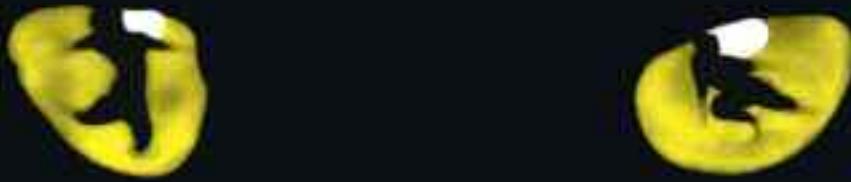
## Art & Story

- 18 | 이탈리아 통신  
치즈(Cheese)
- 22 | 예술을 말하다 I  
쇼아키노 로시니7
- 25 | 예술을 말하다 II  
베르사유의 미로 정원
- 28 | 예술을 말하다 III  
뮤지컬 캣츠
- 32 | 김용진의 Piano Forte  
가을의 탕고
- 35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렌트



## Information

- 39 | 10월 공연·전시 가이드
- 41 | 10월 공연·전시 일정
- 43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 45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 46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 CATS

##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울산

**새로워진 캣츠가 온다!**

| 공연시간 | 2017년 10월 13일(금) ~ 10월 15일(일) (3일 5회)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 오후 2시, 오후 7시 / 일요일 : 오후 2시, 오후 7시

| 공연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 티켓가격 | 젤리클석 15만원 / VIP석 15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관람등급 | 만 7세 이상 | 관람시간 | 16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런던, 시드니, 파리, 뉴욕, 서울 그리고 울산! 전세계적인 '캣츠' 열풍 한국 상륙!

## 새로워진 캣츠가 온다! 2017 <캣츠> 내한공연



### Let the Memory Live Again!

“<캣츠>는 최고의 작품” - The Times -

“어느 때보다 완벽한 <캣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 Huffington Post -

“<캣츠>의 감동은 여전하다” - AM New York -

“<캣츠>가 기존의 팬들과 새로운 세대의 관객의 곁으로 돌아왔다” - The Stage -

#### 2017, The Year of CATS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명작 <캣츠>, 새롭게 돌아오다  
뮤지컬의 또 한 세기가 열렸다!

2014년 웨스트 엔드를 시작으로 2015년 시드니, 파리

2016 브로드웨이, 2017 유럽 투어와 한국 확정!

2017 토니상 노미네이션의 강력한 후보작

영화 <레미제라블>의 톰 후퍼 감독의 영화화까지

제 2의 '캣츠' 열풍 한국 상륙!

#### Better than Ever

안무, 기발, 의상... 새로워진 <캣츠> 아시아 최초 공개!

달빛 속 더욱 매혹적인 고양이로 변신할 그리자벨라

의상, 메이크업 등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의 개성을 살려낸 업그레이드된 비주얼

질리언 린이 연출한 역동적이고 파워풀해진 군무와 새로운 아리아

전세계 도시마다 다른 버전으로 연출된 '럼 팀 터거'는 섹시한 이미지 그대로!

새로워진 <캣츠>의 베스트 만으로 구성된 무대

#### Cats for CATS

전세계적인 열풍을 한국으로 가져올 월드 와이드 캐스팅!

웨버의 지휘 아래 미국, 영국, 호주, 남아공 등에서 펼쳐진 5개월간의 오디션

<캣츠>에 적합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최상의 캐스트 완성!

<위크드> 엘파바로 화제가 된 푸른 눈의 그리자벨라 '로라 에잇'

미국의 '럼 팀 터거', TV, 영화에서 활약한 멀티테이너 186CM의 '럼 팀 터거' '윌 리처드슨'

<오페라의 유령> 등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한 월드 스타 '브래드 리틀', '이안 존 보그'

세계 <캣츠> 무대에서 활약한 베테랑 배우와, 한국 팬의 사랑을 받은 2014, 2015 <캣츠> 내한 배우 합류

#### Legendary Musical

전석 매진, 흥행 불패의 신화

초연 이래 단 한번의 실패가 없었던 파워 콘텐츠

한국인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최고의 뮤지컬 <캣츠>

2007년 국립극장 점유율 100%의 신화 재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무대를 놓치지 마세요!

#### Masterpiece, This is CATS

놀라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천상의 뮤지컬

“<캣츠>의 등장은 전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충격이었다”

T.S.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뮤지컬로 그려낸 무대

호기심 많은 갓 태어난 고양이부터 과거를 그리워하는 나이 든 고양이까지

30여마리의 고양이들의 다양한 인생을 경험케 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

아크로바틱, 탭 댄스 등 뮤지컬의 대표적 안무로 꼽히는 화려한 춤의 향연

가슴을 적시는 감동의 순간, 불멸의 명곡 '메모리'

뮤지컬 그 이상의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황홀한 경험

#### 2017년 가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은은한 달빛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고양이들의 놀이터

일 년 중 단 하루 열리는 '젤리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Amazing CAT's Footstep

전세계 30개국, 300개 도시, 15개 언어, 7,300만명 관람, 9,000회 이상 공연

토니상 7개 부문 포함, 올리비에, 그래미 등 전세계 메이저 어워드 수상

첫 번째 US 투어 만 6년 2개월 공연으로, 미국 극장사상 최장 투어 기록

<캣츠>의 브로드웨이 성공은, 비틀즈에 이은 'British Invasion(영국침공)'으로 센세이션

'메모리' 플라시도 도밍고, 사라 브라이트만 등 150명의 아티스트에 의해 180번 이상 레코딩

#### Original Creative Team

작곡 앤드루 로이드 웨버 뮤지컬의 모차르트, <캣츠>, <오페라의 유령>을 탄생시킨 거장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 4대 뮤지컬을 제작한 세계적인 제작자

안무 질리언 린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은 뮤지컬 안무의 거장

연출 트레버 년 셰익스피어 극의 대가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연출가

시인 T.S. 엘리엇 '황무지' 등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 문호

- 제 작 : 설엔컴퍼니
- 주 최 : 울산광역시, (주) 밝은누리
- 주 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공연마루
- 예 매 : 누리티켓, 인터파크 티켓, 클럽서비스, 울산문화예술회관
- 문 의 : 1566-9621



「백러는 부흥수」의  
몸짓과 파주비너!

백이  
밤하다

백이

스튜디오의 안식부

2017. 10. 27.(금) ~ 28.(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7일(금) 오후 8시 공연  
티켓 20,000원  
(회관 유료주차 5,000원)

28일(토) 오후 2시 공연  
청소년을 위한  
무료공연  
\*공연권할증기  
관람을 원하는 학교 및  
중소기업 단체는 유선문의  
(052-226-8239)



# 전석매진의 신화! 국립현대무용단 렉처 퍼포먼스 **춤이 말한다**

스튜디오의 안과 밖

## 국내 최고의 현대무용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파쿠르 등 서로 다른 장르의 무용가들이 모여 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체와 몸짓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춤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무대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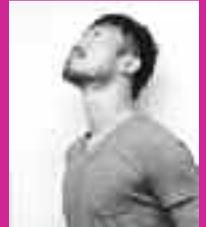


#### “전통무용을 통해 지금을 직면한다” 김영숙(한국전통무용)

궁중무용의 지킴이로서 우리의 춤에 기동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숙은 1970년부터 심소(心韶) 김천흥(金千興)선생에게 춘앵전(春鶯囀)을 사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황옥선(黃玉仙)선생에게 춘앵전을 사사하여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전수교육조교이자 사단법인 아악일무보존회 이사장으로서 일무 전승에 일평생 헌신해 온 김영숙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에서 예악학(禮樂學)을 전공하고 '한국 제례일무의 미학사상(美學思想) 연구'를 제출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재연구회 예술감독을 수행하면서 춤뿐만 아니라 전통사상과 철학까지 옹근게 전승·보존하고 있는 김영숙은 이 시대 전통예술계의 진정한 대모이다.

#### “춤을 추는 것도, 추지 않는 것도 결국 두려움이다” 예효승(현대무용)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온 춤꾼 예효승은 남보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동아무용콩쿠르에서 금상(1999년) 수상, 문예진흥원의 신진 예술가 지원을 계기로 파리로 진출, 2004년부터 '파리 아틀리에 데 카를린 칼송 무용단'에서 활동한 데 이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벨기에의 세드라베 무용단(Les Ballet C. de la B.)에 세계 각국에서 지원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제치고 발탁된다. 각고의 노력과 패기로 벨기에 Les Ballets C. de la B. Alain Plate에 입단, 전세계의 무대를 누비면서 2012년 개인공연 <예효승 손가락 춤 -Life->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안무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무용예술부문 문화 체육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조안무"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2014년 "프랑스파리어름축제" 초청, <N(own)ow>를 시작으로 벨기에 브루게에서 열린 "12월 페스티벌" 초청 <Traces>, 2015년 10월부터 "브라질 국제 댄스 비엔날레" 초청, <N(own)ow>, <Traces>, <Chaosmos>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원래 위험이란 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두려움을 느끼면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김지호(파쿠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무한경쟁, 입시지옥에 지쳐가던 김지호는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아마카시"를 통해 파쿠르(프랑스 군인들의 유격훈련에서 유래된 파쿠르는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등 유럽과 미국 그리고 대만과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훈련)라는 세계를 알게 된다. 매일 새벽 홀로 파쿠르를 연습하면서 자신을 찾게 된 김지호는 지난 2008년 직접 파쿠르의 탄생지 프랑스 리스(Lisses)에 방문하여 많은 외국 트레이서(Traceur, 파쿠르 훈련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Parkour Fitness Specialist 자격증을 획득하며 차근차근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현재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2014년, 전 세계 현재 50여명 밖에 없는 "ADAPT Level 2" 국제 공인 파쿠르 코치 자격 과정을 성공적으로 패스하여 다양한 지형지물(산, 건물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면서,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파쿠르의 국내 유일 정식 코치가 되었다.

#### 탁월한 연기력, 특유의 카리스마...임혜경(발레)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후 유니버설발레단 입단. 클래식, 네오클래식, 컨템포러리 발레 등 수많은 작품에서 탁월한 연기력과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무대에서도 많은 발레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한국 발레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영혼으로 춤추는 발레리나'라 일컬어지는 그녀는 현재 임혜경 Le Ballet 라는 프로젝트 발레단의 대표이자 안무가 겸 발레리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발레리나 활동 외에도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해 교육자, 경영자, 공연기획에도 역량을 보였으며 성균관대 겸임교수 역임 및 대학에서 강의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저자 활동으로는 2014년 하반기 건강파트 베스트셀러 선정 '데일리 발레클래스'를 출간(교보문고) 했으며 한국발레협회 이사, 한국프로 발레협회 이사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연성과 힘을 겸비한 예외적인 무용수” 이선태 (현대무용)

198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11세부터 비보이를 시작으로 춤의 세계에 입문했다. 모든 춤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충남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현대무용을 배우기 시작해 비보이와 현대무용을 접목시킬 수 있었고, 2005년 동아무용콩쿠르 학생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그는 2008년 동아무용콩쿠르에서 대상, 서울 국제무용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밖의 각종 무용콩쿠르에서 상을 휩쓸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LDP무용단에 입단해 8년간 다양한 작업과 무대경험을 쌓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저변을 확대했다. 2013년에는 M.net에서 방송된 <댄싱9>에 출연해 자신의 팀을 우승팀으로 이끌었고 이를 통해 한국 대중들에게 현대무용을 알리는 큰 계기를 제공했다. 그 후 '대중의 예술화'를 모토로 삼고 있는 단체 'STL Art Project'를 창단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울산문화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II

기간 2017. 9. 9.(토) ~ 12. 2.(토), 85일간

장소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일원



김태수, ECO FLOW-Seedgrowing



김성민&서영호, 탈출구



이인행, 바람 불어 좋은날



김태수, ECO FLOW-Sun Shining



김용민, 부유



한경희, 자아의 성



정진호, Wing chair



이성웅, 공감



신현철, 증식



## 9월 9일 ~ 12월 2일까지 85일간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일원 야외조각 새단장으로 시민들 가을 마중



울산문화예술회관은 가을을 맞아 야외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야외조각 작품 12점을 전시하여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올해 상반기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I'에 이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 김용민, 김태수, 서동현, 신한철, 이성웅, 이인행, 정진호, 한경희 등 작가 9명의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현대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실제대상을 일정비율로 축소시켜 철선을 재료로 입체 조형물을 제작하는 **김성민**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선의 간결한 형태와 복잡한 구조로 표현했으며, **김용민**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하여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움직임과 생태, 소리를 연구하여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화려한 색채의 스테인레스 스틸 조각을 출품한 **김태수** 작가는 유기적인 곡선과 리듬, 자연에서 주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생태흐름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서동현** 작가는 사람이 걸어 나오는 역동적인 형상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단편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신한철** 작가는 구의 단일한 형태적 요소를 반복한 원색의 화려한 색감과 양감의 오브제로 야외전시장을 가득 매우고 **이성웅** 작가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형상을 표현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버림 받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담아 거대 작품을 구현하였다.

도심 속 작은 정원을 표현한 **이인행** 작가의 작품은 바람개비를 소재로 하여 자연바람이 주는 따뜻함과 화려한 색감으로 어린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며 **정진호** 작가의 작품은 거대한 날개가 달린 의자 형태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작품에 직접 앉아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한경희** 작가는 자신의 자아 속 형상을 천으로 설치하여 색다른 현대미술을 소개하며,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관람객들은 현대 조각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관람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이 예술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현대미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MAESTRO SERIES 5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95th Subscription Concert  
Maestro Series5  
Fri 8th October, 2017. 8:00PM  
Conductor : Gerrit Priessnitz  
Violin : Kyungsun-Lee

마에스트로 시리즈 5



2017. 10. 2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게리트 프리스니츠 바이올린 이경선



# MAESTRO SERIES 5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지휘자들과의 함께 하는 마에스트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비엔나 폭스오퍼와 비엔나 아카데미 필하모니 예술감독을 역임한 독일 출신의 지휘자 게리트 프리스니츠와 서울대 음대, 피바디 음대,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워싱턴 국제 콩쿠르 1위 및 수많은 수상경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의 협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비롯하여 슈만의 교향곡 제3번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휘자 게리트 프리스니츠 (Conductor Gerrit Priessnitz)

- 비엔나 폭스오퍼(Vienna Volksoper) 지휘자 역임
- 비엔나 아카데미 필하모니 예술 감독 역임
- 에르푸르트(Erfurt) 극장 지휘자 역임
- 린츠 부르크너 오케스트라, 독일 라디오필하모니,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심포니, 로스톡 필하모니, 예나 필하모닉 등 지휘



###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Violinist KyungSun-Lee)

- 서울대 음대, 피바디 음대, 줄리어드 음악학교 졸업
- 부산콩쿠르 대상, 동아콩쿠르 1위, 워싱턴 국제콩쿠르 1위,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입상
- 말보로, 아스펜, 라비니아, 콜로라도 알펜글로우,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등 초청연주
- 콜퍼스 크리스티 국제콩쿠르, 통영 국제콩쿠르, 서울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 현) 서울대 음대 교수, 대전 실내악축제 예술 감독, 서울 비르투오지그룹 음악감독

## Program

▶ 베토벤 / 서곡 [코리올란] 다단조 작품62  
Beethoven / Overture [Coriolan] c minor op.62

▶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77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INTERMISSION (휴식)

▶ 슈만 /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97 [라인]  
Schumann /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97 [Rheinische]

## INFORMATION

티켓\_ R석/3만원 S석/2만원 A석/1만원

할인\_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공연문의\_ Tel. 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장미축제 참가 기념공연

# 울산의 아름다운 유산

**2017. 10. 17.(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_ V석2만원 R석1만원 S석7천원 A석5천원  
할인\_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문의\_ 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_ ▲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입니다.

## 제101회 정기연주회는

울산-포틀랜드 자매도시체결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포틀랜드 장미축제 참여와 함께 시애틀, 미줄라 등  
총 4회의 성공적인 연주회를 기념하며 현지에서 뜨거웠던 감동을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음악회입니다.



지휘 민인기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New York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합창지휘 박사
- 북미음악대학협의회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 역임
- 현.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



반주 김혜은



반주 강혜진

## Program

### ■ Opening

Salut d'Amor / E. Elgar

### ■ The Spirit of Korea

The Blue Bird (새야 새야 파랑새야) / arr. Moonseung Lee

Can't Forget (못잊어) / Hye-Young Cho

The Analea Flower (진달래꽃) / Hakjoon Yoon

The Bird's Song (새타령) / Gun-Yong Lee

### ■ The New Voices of Korea

Kyrie eleison (The Lord have mercy upon us) / Jung Sun Park

The Song of Pole Carrying (목도소리) / Jung Sun Park Hye-Young Cho

The Whales' Chorus (고래떼의 합창) / Gun-Yong Lee

Arirang (아리랑) / Hyo Won Woo

### 〈INTERMISSION 휴식〉

### ■ he Spirit of America

Shenandoah / arr. Mark Wilberg

Beautiful Dreamer / Stephen Foster arr. Roger Wagner

Swingin' with the Saints / arr. Mark Hayes

### ■ The New Voices of America

Little Birds / Eric Whitacre

The battle of Jericho / arr. Mose Hogan

I'll Make the Difference / Mose Hogan

New York, New York / Fred Ebb

# 주악 한마당

울산시립무용단



2017. 10. 19.(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입장등급 | 5세 이상 입장가능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 경북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에능보유자 정순임 명창이 들려주는 『심청가』

강미선 예술감독이 이끄는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의 아름다운 가야금병창  
지역 소리꾼들의 소리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진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지도자 박정은      악장 박상욱      특별출연 정순임      특별출연 강미선      특별출연 김소영      특별출연 김미경      특별출연 엄영진

한국무용, 국악,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9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순임 명창,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강미선 예술감독, 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등 지역 소리꾼들이 특별출연해, 아름다운 춤사위와 신명나는 국악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울산시립무용단 박정은 지도자가 연출을 맡고, 박상욱 악장이 음악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국내 정상급 ‘명인名人전’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경북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에능보유자 정순임 명창의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6세에 국악에 입문한 정순임 명창은 15세에 임춘앵여성국극단에 합류해 도창을 맡았고 25세에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주시립국악단과 신라국악예술단 강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문화분야 최고영예인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정순임 명창의 가문은 장석중(거문고 명인), 장판개(판소리 국창), 장월중선(가야금 병창) 등 4대에 걸쳐 국악 후학양성과 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전통예술 보존과 계승에 앞장선 국악 명가 1호'로 선정된 국내 유일한 국악명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악한마당』에서는 강미선 예술감독이 이끄는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의 창과 가야금선율이 어우러지는 가야금병창의 단가 중 ‘명기명창’, 『수궁가』 중 ‘고고천변’과 지역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소리를 전하는 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소리꾼이 함께 무대에 올라 구성진 남도민요 중 ‘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등을 열창한다. 또한, 밝은 달빛 아래에서 여인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민속놀이 ‘강강술래’와 아름다운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고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사랑가’, 소고춤, 장고춤, 사물놀이가 한 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판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국악의 향기와 전통 춤의 신명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한다.

### PROGRAM

- 『산조합주』 ..... 울산시립무용단
- 『강강술래』 ..... 울산시립무용단
- 『사랑가』 ..... 춤\_노연정, 구태우 | 반주\_울산시립무용단
- 가야금 병창 『단가 中 명기명창, 수궁가 中 고고천변』 ..... 병창\_고령군립 가야금 연주단
- 판소리 『심청가 中 심봉사 눈 뜨는 대목』 ..... 소리\_정순임 | 고수\_정성룡
- 남도민요 『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 타령』 ..... 노래\_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 반주\_울산시립무용단
- 판굿 .....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기획공연

# 치유 그리고 감사

2017. 10. 14. (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전석 1천원

문의 275-9623-8 [www.ucac.ulsan.go.kr](http://www.ucac.ulsan.go.kr)

※본 공연은 만 5세 이하 관람이 불가합니다.

##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합창의 무대!

추수의 계절을 맞아  
시립청소년합창단이 준비한 기획공연  
추수 그리고 감사.



지휘 한성용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의 졸업
- 러시아 성악 대학으로부터 국립음악원 졸업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협연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협연단 지휘
- 러시아 레닌град레닌음악대학 교향악 부원소 음악의 보조 출연
-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부산시립합창단합창단 지휘자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은 지라라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울산문화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역 맡아 2009년 12월에 창단되었다. 연고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및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을 활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당당히 울산문화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들의 눈높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레파토리와 선장은 학교 수업에서의 이론강의 음악교육과 병행해 주화음과 친밀한 음악의 공진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에서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 앞에서 부활하고 더불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 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창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은 손쉬우며 즐겁고 쉬운 가사와는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노래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 특별출연



배이스 이광규

- 한양대 성악과 졸업
- 메트로폴리타니 수립대 석사 취득
- 마술피리, 모조르니, 피카르 등 총 30여편 이상과 모짜르 작품 출연
- Caruso International Competition, Metropolitan Opera Competition 등 국제적 경쟁 수상
- 아나톨리안 연극, 휴스턴 오페라를 대역시 130여 이상 과 모짜르의 극장에서 활동
- 미국 Phinick Artist Management 소속 가수

###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

지휘 김은정



### 프로그램

**아름다운 노래**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 나비에게 ..... 조혜정 곡  
• 모래성 ..... 어. 박나리  
• 어린이 왈츠 ..... 권길남 곡 어. 박나리

**배이스 이광규**  
• 시간에 기대어 ..... 최진 곡  
• Udhol G nusbci attenti from felis d'arror ..... G.Donizetti

**애니메이션 주제곡 합창**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 Part of Your world (인어공주 #)
- Necessities (장금복 #)

**아프리카 민요** ..... 이현필 곡  
• 주노과 양키  
• Jambo African Folk Song

**애니메이션 주제곡 합창**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 Beauty and the Beast (미소) 미수 #)
- Reflection (환란 #)

# Italia 통신

## 치즈 Cheese



이탈리아인들의 주식인 파스타와 피자에도 항상 들어가는 치즈는 이탈리아어로 포르마쥬(Formaggio)라 불리는데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50여종이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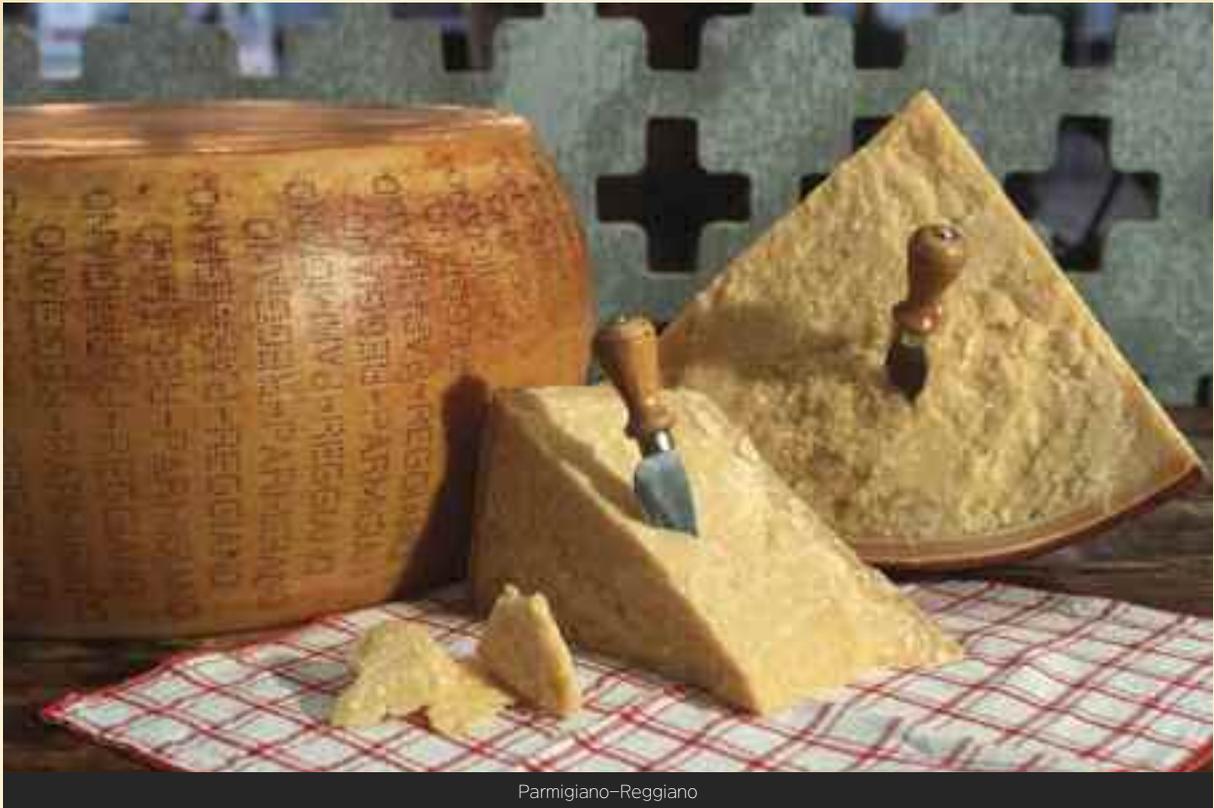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치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염소와 암양의 젖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 지형과 기후가 지역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인 강 주변은 소를 기르기 좋아 소젖으로 만든 치즈가 많고 산맥으로 가파른 지역은 소보다 양을 기르기 적합해 암양의 젖을 이용한 치즈가 많다.

이탈리아의 치즈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콜루멜라(Columella)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농업학자가 [농업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양의 네 번째 위에서 나온 레닛(효소)으로 우유를 응고시켜 치즈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을 만큼 로마 시대부터 각종 문헌 자료에 치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의 치즈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북쪽 지방에서는 알프스 산맥에서 발달한 스위스 풍의 하드 치즈가 발달하였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물소나 염소의 젖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생치즈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또한 로마황제 시저도 블루 치즈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치즈는 로마 시대부터 인기 있는 식품이었다.



Formaggi Misti



Parmigiano-Reggiano

### 파르미자노 레자노

Parmigiano  
Reggiano

이탈리아에서 '치즈의 왕'으로 불리며 보통 파르메산(Parmesan) 치즈라고 알려진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즐겨먹는 치즈 중 하나이다. 파르마산 치즈의 원래 명칭은 파르미자노 레자노(Parmigiano-Reggiano)로 파르마와 레조에 밀리아(Reggio Emilia)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름이 유래가 되었으며, 12~13세기에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즈 중의 최고라 일컬음을 받으며 1996년 EU에 의해 원산지 보호 제품 DOP(Denominazione di Origine Protetta)로 지정되었다. 지금도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첨가제나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유, 해염, 천연 레닛(효소)으로만 만드는 천연 치즈이다. 소금물에 20일정도 담근 뒤 숙성실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숙성을 거쳐 완성된다. 숙성 기간에 따라

fresco(fresh:18개월 이하), vecchio(mature : 18-24개월), stravecchio(very mature: 24-36개월)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무게가 30~40kg, 크기는 지름이 35~45cm가 될 정도로 크기가 크며 표면 보호를 위해 왁스를 도포한다. 단단한 껍질이 6m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이후 치즈는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 북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산된 치즈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와 함께 제조 연월일이 치즈 옆면의 표면 위에 점을 찍듯 새겨진다. 파르미자노 레자노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을 수 있는데 치즈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그냥 먹거나 와인과 곁들여 먹으며 맛과 향이 심하게 자극적이지 않아 가루를 내어 파스타나 리조토, 스프 위에 뿌려 풍미를 더하기도 한다.



Gorgonzola



Mozzarella

**고르곤졸라**  
Gorgonzola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블루치즈로 북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고르곤졸라(Gorgonzola)에서 유래되었다. 알프스 산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내려온 소떼들이 고르곤졸라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치즈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르곤졸라 치즈를 만들려면 커드 내부에 곰팡이의 맥을 형성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 재배된 'penicillium glaucum'을 주입하며 동굴에서 3~6개월 정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푸른곰팡이가 얼룩얼룩 그대로 남아 있고, 숙성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상당히 고약한 냄새와 향을 풍기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치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고르곤졸라 치즈는 영양가가 상당히 높고 짹짹하면서도 씹쓸한 맛을 지니고 있기에 와인 안주로 최적의 평가를 받는다. 보통 꿀과 호두를 곁들여 먹으며 크럼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독특한 향기는 각종 파스타와 리소토 등의 요리에도 널리 쓰여 음식의 풍미를 더해 준다.

**모차렐라**  
Mozzarella

모차렐라 치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프레시 모차렐라(Fresh Mozzarella)로, 원유를 이용해 만들며 소금물에 담겨 판매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을 '일 피오레 디 라테(Il Fiore di Latte)'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차렐라 치즈는 생으로 먹으면 말랑말랑하고 피자 위에 올려 가열해서 먹으면 실처럼 길게 늘어나 피자치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귤러 모차렐라(Regular Mozzarella)치즈이다. 프레시 모차렐라보다 더 건조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피자인 나폴리 지방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자 치즈'로 알려진 경우가 많고, 보통 물소의 젖으로 만드는데 나폴리 지방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우유에서 치즈를 만드는데 8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Ricotta



Formaggi

### 리코타

Ricotta

리코타(Ricotta) 라는 어원은 '재조리하다(Ricuocere, Re-cooked)'에서 왔으며 특이하게도 치즈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만들어 낸 치즈이다. 치즈 제조 과정에서 나온 웨이(Whey)를 다시 가열하고 남아있는 커트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탈리아의 중부 남부에서 많이 생산되는 크림 치즈 종류로 몽글몽글한 하얀색의 크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콤한 맛이 나고 치즈 특유의 짠맛이 없어 디저트용으로 사용해 주로 샐러드나 빵 등과 함께 먹기도 한다. 가열하여 숙성시킨 것, 훈제한 것, 허브로 짠 것 등 다양하게 조리되기도 하는데 만든 직후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용기에 넣어 판매된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만들어냄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치즈의 사용은 한층 더 풍요로운 식생활을 가져왔다. 치즈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치즈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는 치즈의 품질을 보장하는 DOP 제도가 있다. 이는 원산지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를 검증하여 국가에서 치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치즈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스카르포네

Mascarpone

마스카르포네 치즈의 역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치즈는 나폴레옹에게 사랑받았던 치즈로도 유명한데 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탈리아어 '마스케라레(Mascher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변장하다, 위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 지역에서 만들어진 마스카르포네 치즈는 부드러운 크림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디저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며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 티라미수(Tiramisù)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 치즈는 우유에서 크림을 분리시켜 만들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50~70% 정도로 대단히 높으며, 부드러운 크림 타입이지만 밀도가 높아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벌)

# 조아키노 로시니 7

Gioachino Rossini

##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Aureliano in Palm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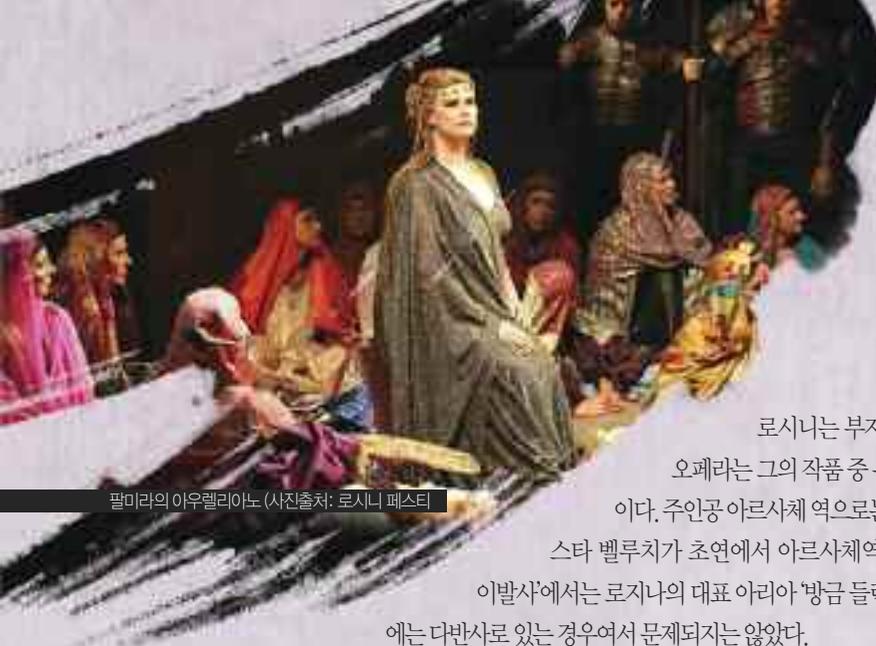
21세의 젊은 청년 작곡가 로시니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미 이탈리아 국민들로부터 오페라의 우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 로시니는 계속 작곡에 전념하여 1814년 한해만도 4번째 작품이 되는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를 완성한다. 1813년 12월 26일 밀라노의 라스칼라극장에서 초연한 2막의 드라마 세리오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는 라스칼라 극장에서 두 번째로 공연한 로시니 초연오페라이다.

### ‘세비야 이발사’의 토대가 된 작품

오늘날 잘 공연되지 않은 오페라이지만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작품이다. 로시니는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의 서곡을 오페라 ‘엘라자벤타, 영국의 여왕’의 서곡으로 재탕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삼탕 했다. ‘세비야의 이발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에 지금은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유명하다. 물론 두 오페라의 내용이 다르기에 서곡의 분위기는 차이가 난다.



로시니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

로시니는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카스트라토를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 오페라는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카스트라토 가수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오페라이다. 주인공 아르사체 역으로는 당대 이름을 널리 알렸던 알토카스트라토 조반니 바티스타 벨루치가 초연에서 아르사체역을 불렀다. 아르사체가 노래하는 아리아를 '세비아의 이발사'에서는 로지나의 대표 아리아 '방금 들린 그 목소리'에 사용했다. 이런 방식을 당시 로시니 시대에는 다반사로 있는 경우여서 문제되지는 않았다.

**대본과 역사적 배경**

대본은 작곡가 파스쿠알레 안포시(Pasquale Anfossi 1727~1797)의 오페라 팔미라의 제노비아(1789)를 원작으로 집필되었다. 그런데 대본 집필자 이름 난에 G.F.R.의 서명만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명대본가 주세페 펠리체 로마니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오페라의 두 주인공은 모두 실존인물이다. 아우렐리아노는 270년부터 275년까지 로마제국을 통치했던 루키우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이다.

제노비아는 로마제국이 어수선했던 틈을 타서 중동지역 팔미라를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여 로마에 맞서 267년부터 272년까지 다스린 여왕이다. 아우렐리아누스는 270년에 팔미라를 침공하였고, 제노비아는 이에 항거하다가 결국 273년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된다. 오페라는 이런 역사적인 바탕 위에 허구의 드라마적인 양념을 가미하여 페르시아 왕자 아르사체와 여왕 제노비아의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을 중심에 두고 아우렐리아노의 자비로움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서로 사랑하는 아르사체와 제노비아의 1막 이중창은 프랑스의 대문호이면서 로시니 전기를 최초로 집필했던 스탕달이 극찬했던 곡이다.

이 노래 이외에도 전막을 통해 벨칸토 테크닉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중창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감동을 주면서 진지하고 격정적인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초연 당시 프로덕션 자체는 호평을 받았지만 로시니의 음악 자체는 이전의 작품 '탄크레디'에 못 미친다는 비평가들의 평이었다. 게다가 초연 때 3주역의 노래도 신통찮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초연 후 약 15년간 이탈리아 각지에서 공연되었고 런던에서도 공연되었다. 로시니 사후에는 공연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 줄거리 «

팔미라의 여왕 제노비아와 페르시아 왕자 아르사체는 연인 사이. 팔미라를 지키던 페르시아 군대는 아우렐리아노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패배하고 아르사체는 감옥에 갇힌다. 제노비아는 조국 팔미라를 위해 마지막 항전을 벌이지만 로마에 정복당한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노는 제노비아에게 반해서 자신과 결혼하여 팔미라를 같이 통치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 사이에 아르사체는 탈출하여 제노비아를 구출하기 위해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군을 공격한다. 늦은 밤 아르사체와 제노비아가 밀회하다가 로마 군대에 들킨다.

아우렐리아노는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에 감탄하지만 두 사람을 처형해야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아르사체를 흠모하던 로마 장군의 딸 푸블리아가 아우렐리아노에게 아르사체를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아우렐리아노는 마음을 바꾸어 제노비아와 아르사체에게 두사람이 결혼하여 팔미라를 다스리고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라고 자비를 베푼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아우렐리아노의 자비심을 모두 칭송한다.

» 주요 아리아 «

- '나를 홀로 두지마오 Non lasciarmi in tal momento'(아르사체)



이탈리아의 터키인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벌)

## ‘이탈리아의 터키인 Il turco in Italia’

### 모차르트의 영향과 로시니의 재기발랄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다음 작품으로 완성한 ‘이탈리아의 터키인’ 역시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1814년 8월 14일 초연했다. 이 오페라는 독일작가 프란츠 사이델만(Franz Seydelmann 1748~1806)의 동명 오페라를 원작으로 펠리체 로마니가 대본을 집필했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 모차르트 ‘후궁탈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이탈리아의 터키인’은 모차르트 ‘여자는 다 그래 Cosi fan tutte’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라스칼라극장에서 ‘여자는 다 그래’ 오페라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전의 히트작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이슬람문화권 터키에 붙잡힌 여인이 태수의 사랑을 뿌리치고 탈출하는 상황을 기본구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 맨인 천재 로시니는 그 후속작 ‘이탈리아의 터키인’에서는 이 구도를 정반대로 뒤집는다. 이탈리아를 선망하는 이슬람국가의 왕자가 나폴리로 찾아와 자유분방한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진정한 연인을 만나 함께 터키로 돌아가는 설정이다.

그런 중심 줄거리 한 편에는 소재 고갈에 빠진 시인이 현실 속에서 만난 주인공들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쓴다는 기발한 구성과 21세기 여성도 울고 갈 과감한 애정 행각을 보이는 여주인공 피오릴라의 대담함은 로시니의 재치와 기발함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관객들은 이 오페라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2탄으로 알았다. 로시니의 오페라 중 제일 신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장 짜임새 있는 오페라로 평을 받고 있다.

### 》》》 줄거리 《《《

나폴리 돈 제로니오의 별장. 시인 프로스도치모는 새로운 시의 소재를 떠올리기 위해 고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매력적인 아가씨 자이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자이다는 원래 터키의 왕자 셀림의 애인이었으나 다른 여자들의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나폴리로 왔다. 자이다는 나폴리에서 기혼남 제로니오를 만난다. 제로니오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이다에게 반해 정신을 못차린다. 그의 아내 피오릴라는 나폴리가 알아주는 질투의 화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인은 흥미로운 소재에 관심이 간다.

마침 터키의 왕자 셀림은 유럽 관습을 돌아보기 위해 나폴리를 방문한다. 돈많고 잘생긴 셀림에게 잘 보이려고 나폴리 여자들은 혈안이다. 시인은 내심 자이다와 셀림의 재회를 기대했지만 셀림은 제로니오의 아름다운 아내 피오릴라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변덕의 소유자 피오릴라는 미모 역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셀림은 피오릴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실력을 다 발휘한다.

허영기 많은 피오릴라는 나폴리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인기남 셀림과 데이트하고, 그러는 와중에 셀림은 우연히 옛 애인 자이다를 만나 반갑게 포옹한다. 피오릴라의 질투심이 끓어오른다. 시인 프로스도치모는 터키인으로 완벽히 변장해야 참석이 가능한 가면무도회를 주최한다. 무도회에 참석한 자이다, 제로니오, 셀림, 피오릴라는 서로 누군지 모르면서 서로 즐겁게 논다. 이러는 사이에 셀림은 자이다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시인은 재미난 소재를 얻어 기쁘기 그지없다. 가면무도회가 끝나자 셀림과 자이다는 함께 배를 타고 터키로 돌아간다. 피오릴라는 남편 제로니오에게 오랜만에 다정하게 군다.

### 》》》 주요 아리아 《《《

-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어 Non si dà follia maggiore’ (피오릴리아)

글\_ 송종근



# 베르사유의 미로 정원

1980년대 유행가 중에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라고 했고, 이 때문에 우리는 미로를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해 보여도 미로(labyrinth)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가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도판 1〉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의 미로

미로는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로 복잡한 삶의 여정, 탄생-죽음-부활 등을 은유합니다. 신화와 종교에서 종종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중세에는 성당 바닥에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미로를 배치하여 순례자들이 이를 따라 걸으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도판1).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정원에 유희를 위한 미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정원에 등장한 미로는 다양한 높이로 전정된 식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관목이나 넝쿨장미, 포도, 재스민, 인동 등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식물이 주로 쓰였습니다. 정원 미로를 거니는 이들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곳을 산책하는 연인들에게 미로는 사랑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식 정원을 대표하는 베르사유 정원에도 미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루이 14세의 정원사인 앙드레 르 노트르는 베르사유 정원을 꾸미면서 오랑주리 근처에 야생적인 미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문인 샤를 페로는 이를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담은 정원으로 만들어 왕세자의 교육에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페로의 이름은 낮설어도 그가 쓴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장화신은 고양이〉, 〈신데렐라〉 등의 동화는 아실 겁니다. 그의 구상에 따라 변형된 미로 정원에는 총 39개의 분수가 만들어 졌습니다. 지그재그의 길을 따라 가다 만나는 모퉁이 마다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동물들로 장식된 분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도판2).



〈도판 2〉 세바스티앙 르 클레(Sébastien Le Clerc), 〈베르사유 미로 도면(Plan du labyrinthe de Versailles), 1677. 파리 프티팔레.〉

# Le labyrinthe de Versailles



(도판 3) 에티엔 르 옹그르(Étienne Le Hongre), 《늑대와 머리(Le Loup et la tête)》, 1673-1674, 납 조각에 채색, 베르사유 성



(도판 4)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 《베르사유 미로(Le labyrinthe de Versailles)》의 일부, 1677, 프랑스국립도서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납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채색까지 된 동물 조각들이 매우 생생하여 진짜 동물 같았다고 합니다. 각각의 동물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도 각기 높이와 양이 달라, 마치 조각들이 이솝 우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희적인 장식 옆에는 궁정의 충애를 받던 문인 이작 드 방스라드의 넉 줄짜리 시구가 적힌 판을 달아 왕세자가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미로가 완성된 후 페로가 직접 쓴 설명서를 보면 미로의 여더를 가더라도 길의 끝부분에는 분수가 있고, 주변에 적어도 서너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수의 물이 담기는 수반도 각기 모양이 달랐고, 자갈과 진귀한 조가비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총 333마리에 달하는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어찌나 잘 만들어졌는지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몇몇 조각들을 보면 비록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정교한 동작이 남아 있어 감탄을 자아냅니다(도판 3, 4). 가령 “늑대와 두루미” 이야기를 재현한 분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늑대 조각상을 볼까요. 이 늑대는 목에 걸린 동물 뼈

때문에 죽을 뻔 했다가 두루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갚기는 커녕 늑대 입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남은 것에 고마워하라며 큰소리를 친 배은망덕한 늑대지요. 베르사유의 조각가들은 각 동물들의 특색을 훌륭히 살리면서도, 우화의 장면을 알 수 있도록 조각을 제작했습니다. 아마 당시 베르사유 정원 구석에 있던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미로 입구에는 두 개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솝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아드네처럼 실타래를 들고 있는 큐피드입니다(도판 5). 아리아드네는 미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반인반수 미노타우로스 이야기에 나오는 크레타의 공주이지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러 미로에 들어갈 때 아리아드네는 그에게 실타래를 하나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로 입구에 실을 매어 두고 들어갔고, 나중에는 이 실을 되감아 나오며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페로는 이 두 조각을 입구에 배치한 이유를 재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큐피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연륜 있는 이솝은 미로로 은유되는 인생의 여정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로는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지적인 유희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놀이를 찾아 미로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도 컸기 때문에 미로 정원은 이후 루이 16세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미로 정원이 있던 자리에는 루이 16세 시기의 유행에 따라 영국풍 정원이 조성되었고, 이국적인 식물들을 심은 “왕비의 총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베르사유를 찾은 방문객들은 이런 저런 나무들이 무성한 이곳에 미로 정원이 있었다는 안내판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굴 작업을 통해 과거 미로 정원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복원된 미로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_ 황주영



MUSICAL CATS

# 고양이의 시선으로 보는 뮤지컬 **캐츠**

〈캐츠〉는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고양이입니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에 의해 1981년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30여 개 나라, 300개가 넘는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죠. 사람 이야기도 아닌데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과 함께 당당히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내한공연을 통해 첫 선을 보인 뮤지컬 〈캐츠〉는 2017년 8월 12일 기준 누적 공연 1,300회를 달성하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과 달리 〈캐츠〉를 접한 뒤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저와 함께 〈캐츠〉를 봤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네요. 〈캐츠〉의 관극 포인트는 여느 뮤지컬과는 확실히 좀 다른데요. 결국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뮤지컬 〈캐츠〉만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국을 찾은 〈캐츠〉는 서울 공연을 끝내고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 지방 투어에 나섰는데요. 이번 기회에 뮤지컬 〈캐츠〉의 재미를 제대로 느껴보시겠어요?

(출처 : 클립서비스)





(출처 : 클럽서비스)

### <캐츠>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들의 이야기

제목이 <캐츠>이고, 캐릭터가 모두 고양이, 게다가 고양이의 의상에 분장, 고양이처럼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시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S.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만든 뮤지컬 <캐츠>는 철저한 고양이들의 시선에서 펼쳐지는 고양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연장에 들어섰을 때 일단 무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게 펼쳐진 무대가 실은 세탁기, 치약튜브, 페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물론 사람만큼 커진 고양이에 맞춰 각종 쓰레기들도 크게는 10배 정도 그 몸집을 불렸지요. 오프닝과 함께 30여 마리의 고양이가 '젤리클 고양이들의 젤리클 노래'를 노래하며 춤출 때 어디선가 커다란 신발 한 짝이 날아오자 고양이들이 일제히 멈춰서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밖에서 길고양이들이 울어댈 때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싶었던 순간이 있죠? 이미 시선이 고양이 입장으로 맞춰져 있다면 이 장면에서 벌써 웃음이 나올 겁니다). 뮤지컬 <캐츠>를 즐기려면 낡은 신발을 집어던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선가 날아온 신발 한 짝에 화들짝 놀라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춤추고 노래하는 고양이에게로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뮤지컬 <캐츠>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고양이들의 이야기니까요!

젤리클 고양이들은 1년에 한 번 축제를 열고, 그곳에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를 찾습니다. 이 축제에 참가한 고양이들은 서로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건 고양이들에게도 사람처럼 저마다 이름이 있고, 직업도 있고, 다양한 성격과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도 있습니다. 사회자 고양이 멍거스트랩, 선지자 고양이 올드 듀터러노미,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 반항아 고양이 럼 텀 터거, 마법사 고양이 미스터 미스토펠리스, 기차 고양이 스킴블샹스, 극장 고양이 거스 등 캐릭터가 확실한 고양이만 20마리가 넘습니다. '도대체 본격적인 이야기는 언제 시작하나?' 기다리는 관객들이 많은데요. 1막과 2막에 걸쳐 축제에 모인 고양이와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게 <캐츠>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환생할 고양이(그리자벨라가 뽑히죠!)를 뽑는 거죠. T.S. 엘리엇에게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손주들이 있어서 고양이를 소재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들을 모아 시집을 발간했고, 그 시집에 곡과 안무를 붙인 게 <캐츠>의 시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뮤지컬의 스토리라인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캐츠>가 되어가는 특별한 과정

사람이 아닌 고양이들의 이야기인 만큼 <캐츠>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고양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지난 내한공연 때 그리자벨라 역을 맡았던 여배우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완벽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처음 2주 동안은 서 있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배우들이

일단 기어 다니면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배우고, 그 과정을 제대로 마쳐야만 서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극중 그리자벨라는 무대에서 있지만 그 역할을 맡은 배우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가하면 <캣츠>는 배우들이 직접 분장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물론 몇 명의 분장사가 한정된 시간 안에 30명의 배우들을 일일이 고양이로 변신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직접 분장을 시작하게 됐지만, <캣츠>를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이 과정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스스로 분장을 하며 사람에서 고양이로 변해가는 것이죠. <캣츠>는 1981년 초연 이래 '모든 고양이 캐릭터는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체취가 다양하듯 멀리서도 냄새로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캣츠> 배우들은 향수도 캐릭터별로 지정된 것만 사용할 정도입니다. 2014년 12월 웨스트엔드에서 공개된 리바이벌 버전부터는 좀 더 고양이다운 의상과 분장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 뮤지컬 <캣츠>의 재미

3시간에 걸쳐 고양이만 소개하는 <캣츠>가 어떤 면에서 재미 있는나고요? 볼거리 많고 음악 좋고 화려하지만, 계속 고양이만 소개하는 데다 이름도 낯설고 자막도 봐야 하니 사실 무대를 쫓아가기도 벅찬 작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무대 연출이나 의상,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동선, 노래나 안무에 두고 스토리는 그 위에 살포시 얹어 보시면 어떨까요? 발레나 피겨스케이팅 무대를 볼 때처럼 말이죠. 그럼 다른 뮤지컬에서는 보기 힘든 참신함과 기발함이 보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배우가 동시에 주인공인 작품은 없죠. 모든 캐릭터가 최고의 연기와 가창력, 안무 실력을 자랑합니다. 국내에서도 '메모리'를 부르는 그리자벨라 뿐만 아니라 섹시하고 화려한 몸짓을 선보이는 럼 텀 터거, 고난



위도의 안무를 자랑하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런가하면 각 고양이의 습성에 맞게 노래와 춤은 또 얼마나 멋진 하모니를 이루나요. 그 어떤 무대에서도 고양이의 움직임이 이만큼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은 없습니다. 배우들은 공연 중에도, 인터미션 때도 수시로 객석을 누비며 관객들과 접촉하는데요. 가까이에서 본 그들의 의상과 분장, 움직임이 얼마나 고양이 같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남다를 겁니다.

이렇게 <캣츠>의 남다른 재미를 느끼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캣츠>는 고양이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캣츠>를 여러 번 보고 그와 함께 나이를 들다 보면 왕년에 스타였지만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극장 고양이 거스와 한때 매혹적이었지만 나이 들어 볼품없어지고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리자벨라에게 더 정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에서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 수많은 아티스트에 의해 전 세계에서 180회 이상 레코딩 된) 유명한 노래라서가 아니라 전후사정을 다 알게 된 진한 감동이 전해지고요. <캣츠>는 재밌는 요소가 많지만 결코 코믹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관통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모든 관객에게 저마다의 재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캣츠>가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겠죠. 사람 이야기도 아니면서 말이죠 (웃음).

글\_윤하정

# CATS

(출처: 클럽서비스)



# 가을의 탱고

만지다,  
가까이 다가서다.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는 곡이 있다. 엷박자의 리듬 위에 우수에 찬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 바로 탱고이다. 지난달에 이어 탱고 음악의 전설 피아졸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탱고라는 것은 고달픈 노동, 서러운 타향살이에 지친 이민자들의 설움과 애환이 담긴 하층민들의 사교춤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르헨티나 고유의 춤은 아니다. '유혹'과 '열정'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탱고의 어원은 'Tangere : 만지다, 가까이 다가서다'에서 왔다. 요즘에서야 스포츠 댄스로 널리 알려진 탱고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탱고 춤 추는 걸 금지하기도 했다.

만지다, 가까이 다가서다...란 말만 들어도 탱고라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짐작이 간다. 이러한 춤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바로 '아스트로 피아졸라'이다.

## 새로운 탱고의 시작



이탈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아졸라는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뉴욕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음악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피아졸라에게 반도네온을 선물한다. 10살 때 반도네온을 접하게 된 피아졸라는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을 돌며 연주를 할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된다.

1937년 미국 경제공황의 후유증으로 더욱 삶이 힘들어 지게 된 피아졸라 가족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온다.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거처를 옮긴 피아졸라는 밴드를 결성하게 된다. 작곡과 연주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었던 피아졸라는 전통적인 탱고 음악에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피아졸라는 다시 뉴욕 행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뉴욕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밴드를 결성하게 된다.

‘Quinteto Nuevo Tango’라는 새로운 5중주 밴드는



피아졸라를 주축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신의 탱고를 새로운 탱고, 즉 누에보 탱고로 부르며 기존의 탱고와는 다른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반도네온으로 고전음악을 연주할 만큼 클래식 음악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피아졸라의 음악은 클래식 연주자들도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리이다. 스트라빈스키와 바르토크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며, 미국의 재즈까지 섭렵한 피아졸라의 새로운 탱고는 그를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만들었다. 20세기 중반 전세계는 탱고의 유희에 빠지고 말았다.

## My Favorite Tango Piazzolla

### Oblivion



‘망각’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피아졸라를 일약스타로 만들었던 ‘5개의 센세이션 탱고’ 중에 한 곡이다. 제목 처럼 망각하고 있었던 이러한 기억이 떠오르는 곡이다. 매우 슬픈 선율이 마음을 울게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나를 위로하는 듯한 곡이다.

### Libertango

피아졸라의 탱고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버전으로 연주되어지고 있는 곡이다.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베르. 탱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곡이기도 하다. 경쾌한 리듬 위에 애환을 담고 있는 우수에 찬 선율은 탱고의 매력에 빠지게에 충분하다.

### Adios Nonino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신들린 스케이팅을 펼칠 때 사용했던 곡이다. 곡 제목은 ‘할아버지여 안녕’이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작곡한 곡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할아버지여 안녕’ 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한다. 아버지를 떠나 보내는 피아졸라의 애잔한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곡이다.

#### Muerte del Angel

‘천사의 죽음’이라는 곡으로, ‘천사의 협주곡’ 중 세 번째 곡이다. 격정적이고 거친 음색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이 곡은 박진감 넘치는 빠른 템포로 시작한다. 천사가 죽는다면 이런 느낌일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리듬과 음정들은 불안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 Fuga y Misterio

아스트로 피아졸라 추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푸가형식으로 작곡한 곡이다. 바로크 시대의 푸가 형식을 미스터리 하게 탱고와 접목시킨 곡이다. 클래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피아졸라의 음악적 성향을 알 수 있는 곡이다.

#### Le Grand Tango



러시아 첼로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곡이다. 첼로와 피아노 2중주로 이루어진 곡으로 장중한 피아노 반주로 시작하며, 중저음의 첼로의 선율이 더해질 때면, 가슴이 벅차 오르는 곡이다. 곡이 마지막을 향해 치달을 때면 피아노와 첼로는 격정적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인다.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곡에 달하면 피아노의 화려한 글리산도로 곡은 끝이 나고 만다. 첼로 곡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으로 편곡해서도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 아르헨티나 탱고와 와인



무르익고 있는 가을날 피아졸라의 음악과 더불어 와인 한잔도 추천하고 싶다. 아르헨티나의 피아졸라 누에보 탱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 바로 아르헨티나의 ‘말벡’이다. 진하고 탄닌이 강하지만, 풍부한 과실향과 매끈한 당도가 일품인 ‘말벡’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 꾸준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와인산업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아르헨티나 말벡이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와인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말벡 와인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경제성장을 이끈 감사한 선물이기도 하다. 대중들의 설움과 애환을 담고 있는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 아르헨티나 말벡 와인, 그리고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라면 요즘 트렌드인 YOLO족 부럽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가을 밤을 위하여 건배.

글\_ 김용진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 제6화

오직 오늘뿐 (No Day, But today)...  
하지만 나의 오늘을 너에게 (Today for you)

# 뮤지컬 렌트

어느 학생으로부터 '뮤지컬이 하고 싶지만 성공하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된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는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뿐 아니라 예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현실에 버려지고 맙니다.

더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들은 젊은 예술가들, 혹은 제작자들이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뉴스에서 흐름이 끊이지 않고 등장을 하다 보니 아무리 자신의 예술장르에 미쳐서 뛰어 들었다 하더라도 커다란 벽이 가로막은 듯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은 깨어나서 사라지는 꿈이 되고 지금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타협한 삶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 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후 언젠든 남은 날을 빼앗길 수 있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아니면 못해본 것을 다 해보고 싶을까요? 다양한 영화에서 혜성충돌이나 지구 재앙, 핵전쟁 등으로 지구의 마지막 혹은 인류의 마지막 날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박탈당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게 남은 날이 없다면... 이라는 명제에 대해 늘 고민이 됩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 마지막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여기 인생에서 남은 날이 얼마나 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뿐입니다. No day, But Today. 오로지 오늘만 남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 뮤지컬 렌트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 다이는 이야기

### 조나단 라슨의 죽음

뮤지컬 렌트를 이야기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렌트의 작가이자 작곡가 조나단 라슨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겨우 서른다섯, 1996년 1월 25일에 뮤지컬의 미래라고 자신하던 라슨은 뮤지컬 렌트의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동맥류 혈전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브로드웨이 진출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 지려하는 전날, 모진 고생을 끝내는 하루 전날, 가난과 무관심을 끝내는 하루 전날 그렇게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천재는 내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속에서 자신이 쓴 가사대로 그예겐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예술과 함께 살아온 오늘날 존재했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천재 예술가의 마지막 유작’으로 더 큰 관심을 모은 렌트는 그 해 4월 29일 마침내 브로드웨이 네덜란드 시어터 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다시 올렸고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과 폴리처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상, 외부 비평가상, 드라마리그상, 오비상 등 뮤지컬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을 휩쓸며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27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되었고 2005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렌트로 인해 뮤지컬 헤어 이후 떠나간 젊은 관객들이 브로드웨이로 돌아오는 기현상이 벌어져서 네델란드 시어터 공연 때에는 젊은 관객의 지갑 사정을 반영한 티켓 가격이 책정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뮤지컬 렌트는 죽음이라는 이야기에서 마감되지 않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젊음의 새로운 투쟁력으로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노획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미국산

뮤지컬(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뮤지컬 해밀턴도 렌트의 투쟁적 변화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작품이었을지 모릅니다.

브로드웨이의 미래였던 젊은 천재 작곡가, 작가 조나단 라슨은 “이 작품은 음악이 뛰어난 작품이거나 캐릭터가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렌트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스토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라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음악도, 캐릭터도 아닌 아주 특별한 스토리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일까요?

푸치니의 1896년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렌트는 오페라가 그랬듯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온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겪는 비극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세기말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를 199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로 가져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냈고 고전의 명작에서 일순간 사회적 문제작으로 부각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작이 된 이유는 당시 무대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였던 에이즈를 무대 위로 끌어 올려 공론화 했기 때문입니다. 극중 인물들은 에이즈로 인해 죽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치료법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려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일의 아침을 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산타페를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노래 합니다. 실제의 현실이 두려워 마약으로 도피하기도 하지만 보헤미안의 삶을 꿈꿉니다. 이토록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두고 내일은 없어, 오직 오늘뿐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정의합니다. 사랑할 시간이라고... (Seasons of Love)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 Final B

극중 주인공들처럼 조나단 라슨도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꿈을 향해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토록 달려가고 싶던 브로드웨이를 향해 가기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더 이상의 내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렌트는 철저히 조나단 라슨을 닮아 있습니다. 결국 내일을 보지 못하는 비극... 렌트 역시 사랑하는 미미를 그렇게 죽음으로 떠나보냅니다. 렌트의 Final A에서 로저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준 미미를 죽음으로 떠나 보냅니다. 이는 틱틱봄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틱봄은 라슨이 죽은 뒤 무대에 올라간 유작으로 라슨의 자전적 뮤지컬입니다.) 틱틱봄의 존 (라슨 자신이 투영된 모습) 역시 좌절로 무너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의 공연... 떠나가는 연인... 에이즈에 걸린 친구...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서른 살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 비극이 라슨에게는 실제의 삶 (Real Life : 틱틱봄의 노래 제목중 하나)입니다. 라슨은 그렇게 죽어가는 미미에게,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노래합니다. 네가 내 노래였어. 말을 할게. 항상 널 사랑했어... (I Should tell you.... I have always love you...)

그렇게 작품은 끝나는 듯합니다. 틱틱봄도 모든 것이 사라져 극을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나려는 그때, 반전으로 작품은 급변합니다. 라슨은 Real Life의 끝을 자신이 갖고 싶은 Dream으로 마감합니다. 그렇기에 두 작품 모두 끝이 느닷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렌트의 마지막 곡은 Final B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렌트는 죽어버린 미미가 갑자기 눈을 뜨고 살아나고 틱틱봄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존에게 스티븐 손다임 (뮤지컬의 대부)에게 전화가 오는 것으로 급반전 하며 당황스럽게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라슨의 Real Life 의 마지막이자 Dream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살아나고 외면이 선택되는... 어쩌면 작품이 끝이 나는 에필로그가 새로운 프롤로그로 전환되는 마무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실제 인생이 죽음이나 좌절된 희망으로 마치기 바라지 않는 라슨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작품처럼 라슨의 인생도 죽음이라는 Final A로 암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과 열정이 담긴 브로드웨이 진출로 새로운 뮤지컬의 패러다임이 되어 Final B를 맞았습니다. 라슨의 인생이, Real Life가, Final A가 힘들게 달려온 마지막이 죽음이었다면 라슨의 Dream은, Final B는 영원히 삶을 사는 예술작품의 생명인 것입니다.

### Final B를 위한 Final A = No day. but Today = Seasons of Love

만약 라슨이 렌트의 완성 전에 자신이 죽고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렌트가 존재 했을까요?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을 두 번이나 갔다 왔으면서 죽음이 두려워 포기 했다면 렌트가 Final B를 맞았을까요?

조나단 라슨에게는 그저 오늘 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예감으로 더욱 작품에 오직 오늘 뿐이라고 노래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오늘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보내시겠습니까? 내일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내일이 없을 것이니까 오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리슨이 죽은 후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글을 통해 뮤지컬 렌트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없어 오직 오늘뿐 (No day, But today)

하지만

오늘은 너에게 주겠어, 내일은 나를 위해!

(Today for you, Tomorrow for me : 극중 엔젤의 노래)

그리고 그 오늘은

사랑할 시간 (Seasons Of Love)

내일 만날 나를 위해 오늘 이 순간,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사람을, 그리고 삶을..

사랑하며 보내는 오늘의 시간은  
나를 위한 내일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이 예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Final B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오늘을 바친 예술이 내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의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글\_ 오세준





# Performances

## 10월 공연가이드

### 합(습)

[2017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中 현대무용공연]

**공연정보** 10. 1.(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L dance company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 해설사가 타 지역 무용인·예술인들과 함께 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공연

### 제20회 재능시낭송축제 울산 시(市 詩)사랑 콘서트

**공연정보** 10. 10.(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재능시낭송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시낭송문화 확산과 시민들에게 시낭송을 통한 정서 순화 및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공연

### 제3회 시낭송스토리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 큰언니-

**공연정보** 10. 11.(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시낭송울산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한 가족의 일화를 실제 스토리로 엮어 가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시를 선택하여 낭송을 하고, 춤과 시, 노래,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재미있고 잔잔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낭송 스토리극

### 제15회 울산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1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곡으로 구성된 공연

### 2017 서덕출. 신고송 동요합창제

**공연정보** 10. 13.(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동요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서덕출 시인과 신고송 시인의 주옥같은 시를 새롭게 동요로 만들어 울산 여러 어린이 합창단을 초빙해 합창으로 발표하는 공연

### 제4회 울산 예음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15.(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음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의 문화생활 발전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클래식을 알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클래식 피아노 연주 공연

### 제37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공연정보** 10. 18.(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및 축하공연

### 제1회 김주언 Tango Quartet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0. 21.(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주언탱고콰르텟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탱고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이 있는 탱고음악 연주회

###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10. 22.(일) 17: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 제37회 울산예술제 문인협회 가을 문학 축제

**공연정보** 10. 31.(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문인협회 가을 문학 축제



# Exhibitions

## 10월 전시가이드

###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11. ~ 10. 16. (6일간)  
전시장소 제1,2,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전시내용 2017년도 한국서예협회 울산  
광역시지회 회원 및 초대작가  
작품 300여점 전시

### 울산의길, 역사와 통하다 사진전

전시기간 10. 11. ~ 10. 16.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시 북구청  
전시내용 울산의 역사 및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130점 전시

###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18. ~ 10. 23.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 250여명의  
1년간 활동한 작품 250점 전시

###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미술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0. 25. ~ 10. 30.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등 울산  
미술협회 회원 250여명의 작품  
300여점 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중 "현대무용공연 '함(合)'" (19:00)</li> </ul>	2	3	4	5	6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회 계동시 민중축제 "울산시(市) 詩사랑 콘서트" (19:00)</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회 시낭송스튜디오 "아리랑은 그렇게 들었네" (19:30)</li> <li>무란 (19:30)</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회 울산행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 &lt;갯조&gt; 내한공연 (19:30)</li> <li>2017 서덕출 신고송 동요합창체 (19:00)</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 &lt;갯조&gt; 내한공연 (14:00, 19:00)</li> <li>창조년합창단 "추수 그리고 감사" (17:00)</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 &lt;갯조&gt; 내한공연 (14:00, 19:00)</li> <li>제4회 울산 에음회 정기연주회 (19:00)</li> </ul>	1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시립합창단 "어름다운 유산" (20:00)</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19:00)</li> <li>무란 (19:30)</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시립무용단 "국악한마당" (20:00)</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시립교향악단 "메트로 시리즈 5" (20:00)</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회 김주연 Tango Quartet 정기 연주회 (14:30)</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회 울산예술제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17:30)</li> </ul>	23	24	25	2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현대무용단 "줄이 밀려다" (20:00)</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현대무용단 "줄이 밀려다" (14:00)</li> </ul>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7회 울산예술제 모인협회 가을 문학 축제 (19:30)</li> </ul>				

## 진시일정

① 제1전시장 ② 제2전시장 ③ 제3전시장 ④ 제4전시장 ⑤ 갤러리룸 ⑥ 야외전시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①②④ 울산시예람회 회람전 ~10.16.(월) ③ 울산의길 역사와 통하다 사진전 ~10.16.(월)			
15	16	17	18	19	20	21
			①②③④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시진작가협회 회람전 ~10.23.(월)			
22	23	24	25	26	27	28
			①②③④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미술협회 회람전 ~10.30.(월)			
29	30	31				
			⑥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II ~12.2.(토)			

중구문화의전당



2017 인문학콘서트 이야기 속으로  
「전원경의 러시아 예술 이야기」

- 일 시 : 10. 12.(목) 11: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러시아 미술사의 중요한 작가와 작품의 탄생에 대한 배경, 에피소드에 대한 강연,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악 연주



2017 가을에 듣는 현악사중주단  
「더 콰르텟」

- 일 시 : 10. 24.(화)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랑 료 : 무료
- 개 요 : 차이콥스키 현악4중주, 1번라장조, Op.11, 베토벤현악 4중주를 위한 6개의 바가텔, Op. 9 등



브런치콘서트 행복한아침  
「요리하는 테너 이현」만자레 칸타레 아모레

- 일 시 : 10. 26.(목)11: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유쾌하고 재치있는 입담, 풍부한 음악적 소양의 로맨틱 성악가의 공연



2017 중구문화의전당 명배우열전  
윤석화의 이야기 콘서트「만남」

- 일 시 : 10. 17.(화)19:30,  
10. 18.(수)19:30, 2회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배우와 여자로서 살아온 윤석화의 삶을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청춘극장 『고산자, 대동여지도』

- 일 시 : 10. 11.(수) 14: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랑 료 : 무료



무료가족영화 상영 『마이펫의 이중생활』

- 일 시 : 10. 25.(수) 19: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랑 료 : 무료

현대예술관



**연극 '어바웃 타임'**  
 · 일 시 : 10. 12.(목)~ 27.(금)  
 · 장 소 : 소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25,000원  
 · 개 요 : 병원에서 달콤한 로맨스로  
 있었던 설렘을 선사하는 대학로  
 인기 연극



**부활 레전드 콘서트 with 김종서, 박완규**  
 · 일 시 : 10. 21.(토) 15:00-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77,000원, 2층 55,000원  
 · 개 요 : 초대보컬 김종서, 5대 보컬  
 박완규와 함께 하는 부활 31주년  
 기념 공연



**탱고 파이어 내한공연**  
 · 일 시 : 10. 24.(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85,000원, A석 65,000원,  
 B석 45,000원  
 · 개 요 : 뜨거운 몸짓으로 전 세계를 열광  
 시킨 아르헨티나 오리지널팀  
 '탱고 파이어'의 매혹적인 탱고  
 무대



**가족뮤지컬 정글북**  
 · 일 시 : 11. 2.(목)~ 4.(토)  
 평일 10:30, 토 11:00, 14: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35,000원, 2층 20,000원  
 · 개 요 :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80분간 숨막히는 정글 세계로 관객  
 들을 인도할 명품 가족 뮤지컬

울주문화예술회관



**마티나스 아코디언 콘서트**  
 · 일 시 : 10. 27.(금) 20: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25,000원  
 · 개 요 : 유럽을 강타한 최정상 아코디언 영웅 마티나스  
 레비츠키와 12인조 앙상블 마이크로 오케스트  
 라가 함께 들려주는 세계적 이야기 연주



**김이란 초대전**  
 · 일 시 : 9. 20.(수)~ 10. 14.(일) 09:00~ 18:00  
 \*매주 '월' 휴관  
 · 장 소 : 공연장  
 · 관 랑 료 : 무료  
 · 개 요 : 울주아트 신진작가 공모 당선자로 아홉마를  
 소재로 개인, 가족과 주변인들의 일상을 풍  
 속화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



#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 메가박스(울산점)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 밀레(달동점)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 솜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시동 1층  
문의 | 052-274-4393

###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티클레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 모리샤브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변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 신라스테이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 가입 방법

-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 (1인)	25,000원 (1인)	40,000원 (1인)	75,000원 (1인)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 MARTINU CZECH PHILHARMONIC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ORCHESTRA



2017.11.11.(토) 오후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 울산광역시 주관 | ▲ 울산문화예술회관 관람시간 | 약 100분 (인터미션 포함) 관람연령 | 8세(지하아동) 이상 관람가  
티켓가 | VIP석 40,000원 3석 30,000원 5석 25,000원 공연 | 대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Leos Swarovsky) 협연 | 카이롤리나스도 데라핀  
페레 및 모의 |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후원 | 

# 향기

SCENT OF INK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 — 세계가 열광한 한민족의 현재

2017  
11.3.(목)  
오후 8시

장르: 무용극  
연출: 김구호  
제작: 국립극단

장소:  
국립극단 대극장

관람료:  
VIP 2만원  
R 1만원  
S 1만원

문의:  
02-071-9622